

현장시선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선거(選舉)는 본래 '선발거용(選拔 擧用)'의 준말이다.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 곧 도(道)라는 의미로 중국 춘추전국시대 노자가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는 히딩크 감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평범한 재료라도 요리사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 지역 농·축협의 미래는 조합장 능력과 역할에 크게 좌우된다. 올해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농업 인뿐 아니라 도민 관심이 쏠리는

바른 경쟁, 옳은 선택, 3월 8일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제주에서도 지역 농·축협 23곳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선택을 받게 된다. 앞으로 4년간 농·축협을 이끌 대표자를 뽑는 이번 선거는 제주지역 농업·농촌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관련법에 의해 선거운동 범위가 제한된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 설치도 불가하다. 아울러 후보자만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선거운동도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해진 방법에만 할 수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한 이유는 조합장선거는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이기에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금품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많은 시비와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앞서 두 번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문화도 많이 깨끗해져 예전보다 선거가 훨씬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관련 기소가 단 1건도 없을 정도로 제주만의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됐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의 미래를 제시할 리더를 뽑고자 선거제도를 도입한 이상 후보자들은 농협 운영에 대한 비전과 정책 제시로 조합원의 표심을 끌어나야 한다. 조합원 역시 금품의 유혹을 단칼에 잘라내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선거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선관위와 합동으로 후보자설명회, 공명선거 결의대회, 임직원·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조합별 방문·지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선관위·경찰청 등 감독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부정선거 사전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선거로 제주 농업·농촌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장 기반을 다져 더 나은 미래로 갈 것인지, 구태의연한 답습에 빠져 과거로 회귀할 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으로, 조합원은 현명한 선택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농협이 되기를 고대한다.

사설

단체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

헌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 요소라서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은 혈액공급이다. 그래서 헌혈은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에게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한해 헌혈로 수급되는 혈액의 70%는 학생과 군인들에게서 뽑아낸 혈액이다. 그렇지만 매년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1~2월, 7~8월은 전국에 혈액수급 비상이 걸린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점차 일상이 회복되고 있지만 겨울철 단체 헌혈은 급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단체 헌혈 실적은 534건으로 목표인 1000건의 53.4%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4건과 비교해도 39% 감

소한 것이다.

겨울철은 학교 방학 등과 겹쳐 단체 헌혈이 녹록지 않다. 단체 헌혈 참여율이 가장 낮은 시기이기도 하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 시기 군부대 단체 헌혈을 중점 추진하지만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군부대 수가 적어 연초 혈액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혈액원은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 생일 이벤트, 고교생 재헌혈 쿠폰제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수혈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다. 겨울철 헌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혈액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공공기관, 사회봉사단체, 기업체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새별오름 훼손 땀질처방으로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주시는 2월 22일 새별오름 관리주체인 정주시는 2월 중에 사업비 9300만원을 들여 등산로 894m에 깔린 야자매트를 교체키로 했다.

알려진 대로 새별오름은 그 동안 탐방객 급증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휴식년제가 검토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제주 오름 훼손 예방은 고사하고 더

욱 부채질하고 있다. 새별오름 안내소와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의 관광자원화 개방사업은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부서 경고와 함께 시정 조치 처분을 요구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장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곳에서 개최되는 2023 제주특별자치도 새별오름 방문객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등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매트 교체 등으로 '환부'를 가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먼 훗날 새별오름의 원형이 사라진 뒤 다시 볼 수 없는 경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휴식년제 조기 시행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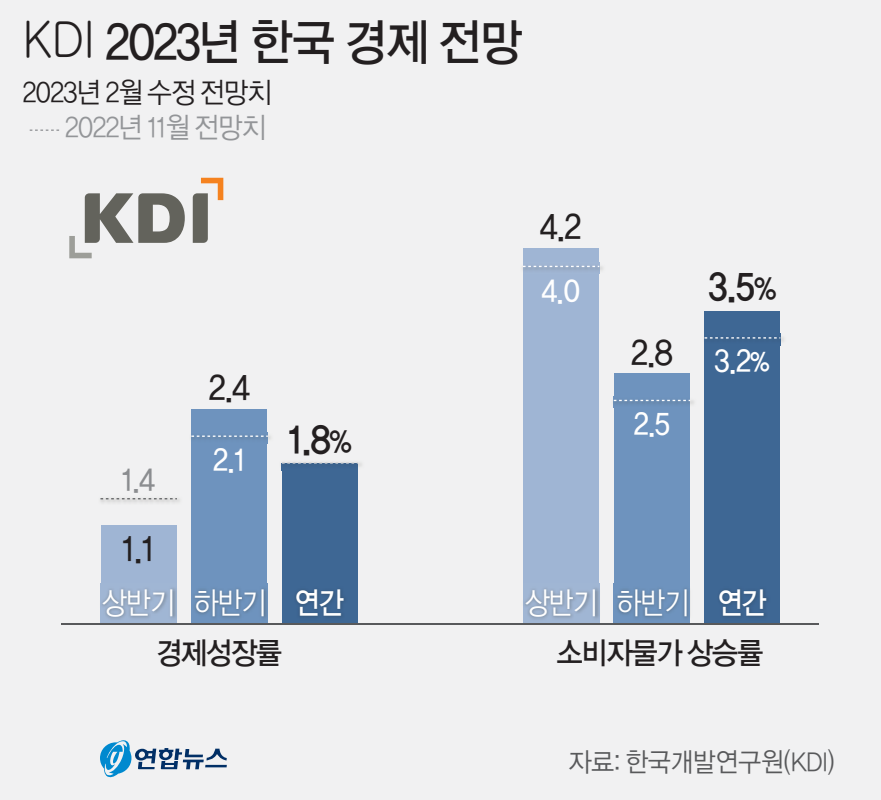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anri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website.

열린마당

손으로 이루는 기적 심폐소생술



홍희수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2022년 제주시 조천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같은 동호회원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사전에 익혀뒀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동료의 살린 사례가 있다.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심이 있어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이 소중한 동료의 목숨을 살린 것이었다. 당시 심정지 환자였던 흥씨는 현재 생업인 버스 운전을 이어가는 등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심폐소생술은 최초 목격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직장 동료들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둬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소방본부 소방교육대는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장을 운영하며 도민 심폐소생술교육 참여를 통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인증된 전문강사가 실기중심의 교육을 시행하며 일정한 기준 통과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주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신청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미 최근 3년 동안 소방교육대에서 총 220회 4354명이 교육을 받았다.

심폐소생술교육의 중요성이 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보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 이번호 저희 어머니 안동권씨 애선(향년 9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 본 회사는 2023년 2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54 국방경비법위반 등 피고인 홍기영, 고재우, 송관숙, 송근상, 오경은, 김용호, 고순현, 고경진, 김복선, 오태원, 김석부, 김민부, 김용식, 현상봉, 고덕근, 정상규, 홍인봉, 홍승생(이상 국방경비법위반죄, 간첩죄), 박영유, 양상원, 진희민, 문재민, 원옥성, 고경진, 김경문, 문병화, 김대보, 김진문, 박창계(이상 내란죄) 위 피고인들은 국방경비법위반죄, 간첩죄 또는 내란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차고지/주차장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감기사업 * No.1 시공업체 -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향운철학관 - 향운거사 이방백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쉽고도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씀 - 이번 저희 어머니 양천희씨 향순(향년 9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고합136 (2021전고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오민혁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삼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묘지후손찾기 -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에 내 가능합니다." -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010-7305-7819

토지임대 -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향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종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